

종교박물관의 유형과 그 운영의 방향

윤이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서론: 종교박물관의 특성과 기능

종교는 모든 문화현상 가운데 가장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박물관 소장품의 절대다수가 종교현상과 직접 또는 간접적 형태의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기존의 “일반박물관”과 “종교박물관”은 그 소장 및 전시품에 있어서 많은 중복이 불가피하게 되고, 나아가 그 운영의 방향에서 또한 구별이 불가능한 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원칙론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종교박물관은 종교 박물관다워야 한다.

그렇다면 종교박물관다워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종교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전승하고 나아가, 앞으로 종교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종교문화가 지닌 특성을 일반문화와 구별하는 안목과 그러한 기준으로 문화재를 선별·보존하고 또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종교현상은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의 경험내용이 체제화 하여 문화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처럼 문화형태로 표현된 종교현상은 적어도 인간의 장구한 문화사를 통하여 누적된 요인과, 인간의 영성적 체험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표현되는 요인들, 이처럼 두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¹⁾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박물관의 구성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세계종교사”의 지식과 “종교현상학”의 안목이 조화된 기반위에서 종교박물관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조건이 수용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운영되는 박물관은 말하자면, “바람직한 박물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특히 한국에 공존하는 종교들의 문화재를 모두 소장·전시하는 “다종교(多宗教) 박물관”을 만들 때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불교 박물관”이나 “기독교 박물관” 등과 같은 개별 “전통종교(傳統宗教) 박물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기본적으로 전통종교 박물관은 자기 종교전통의 문화재에 국한하여 소장·전시하게 되고, 그 의도는 개별 전통종교의 전

1)종교현상은 흔히 영성적(Spiritual)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영성적 현상도 분석적 안목에서 보면, 위와 같은 두 차원의 연합체계 안에서 경험된다.

통문화의 전수와 보전에 집중된다. 개별 전통종교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종교전통과 한국사회·문화전통의 관계의 맥락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게 된다.

이처럼 다종교 박물관과 특정종교 박물관을 포함한 종교박물관(宗教博物館)과 비종교박물관(非宗教博物館) 또는 일반박물관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비종교박물관은 문화의 일반분야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진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종교박물관은 종교전통에 따라 전시품이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별 종교전통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종교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별종교 현상은 그것이 속하는 종교전통의 세계관의 일부 측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종교박물관은 가시적인 전시품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종교적 또는 정신적 세계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특성이 매우 강하다. 다시 말해서 종교박물관은 가시적인 전시장을 통하여 정신적인 세계관을 소개하는 기능을 하는 점이, 비종교박물관에 비하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종교 박물관과 다종교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먼저 “전통종교 박물관”은 자기전통과 관계하여 2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전통종교의 귀중한 문화자료를 보존함으로써, 자기 종교전통의 정체성을 전승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다. 둘째, 자기 종교전통의 건강한 유지·발전에도 모함으로써, 개별 종교전통이 한국 민족문화전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다종교 박물관”은 한국민족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첫째, 다종교 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정신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더없이 효과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민족의 과거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교, 불교, 또는 민족고유 전통과 같은 특정 문화전통의 영역에서 이해한 “우리의 과거 정신세계”를 소개받아왔다. 그 결과 우리의 “과거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종교 박물관”은 우리민족의 정신적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둘째, “다종교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종교(多宗教) 사회인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고 다원주의 질서(多元主義 秩序)를 이룩하는 지름길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역사에는 종교로 인하여 왕조는 갈렸어도 민족이 분열되어 본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비록 종교로 인하여 가족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이 헤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민족 가운데 아무도 없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 위에서 다종교상황의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게 될 때, 우리는 곧 지구촌의 제일의 문제인 종교와 민족간의 갈등과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종교박물관의 건설과 운영이 이처럼 우리사회의 문화상황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세계문화사의 발전에 큰 길을 열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종교박물관의 유형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바와 같이, 박물관은 “종교” 또는 “비종교” 박물관을 막론하고 국공립(國公立)과 사립(私立) 박물관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국·공립을 앞으로는 공립이라 하기로 한다. 또한 앞의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박물관”은 그 성격상 기본적으로 “전통종교(傳統宗教) 박물관”과 “다종교(多宗教) 박물관”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박물관 일반

1. 공립박물관
2. 사립박물관

나. 종교 박물관

- A. 전통종교 박물관
- B. 다종교 박물관

모든 종교박물관은 그것이 박물관인 한은 “가. 박물관 일반”에 속하면서 동시에 “나. 종교박물관”에 동시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박물관은 결과적으로 아래의 4개 유형 가운데 하나에 기본적으로 속하게 된다. 한마디로 종교박물관은 아래의 사유형(四類型)으로 나누어진다.

종교박물관의 4개 유형

- 1A. 공립 전통종교 박물관
- 1B. 공립 다종교 박물관
- 2A. 사립 전통종교 박물관
- 2B. 사립 다종교 박물관

종교박물관은 결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4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의 4유형은 가.“공립”과 “사립” 박물관의 두 유형과, 나.“전통종교”와 “다종교” 박물관의 두 유형을 혼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처럼 혼합된 유형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박물관으로 형성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한 형성된다 해도 온당한

기능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위 4개 유형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각각 고유한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A. “공립 전통종교 박물관”은 무엇보다 사실상 설립의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을 특정한 전통종교의 박물관을 설립하는데 투입하는 경우, 그 명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설립된다 해도, 그 운영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B. “공립 다종교 박물관”은 설립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설립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종교박물관에 소장될 문화재는, 그 소장품의 분야가 비종교 박물관의 그것과 달리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양의 소장품을 수집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요청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종교관계 문화재들은 이미 개별 전통종교들이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면 “공립 다종교 박물관”의 설립은 가능하고, 또 서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문화사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2A. “사립 전통종교 박물관”은 현재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박물관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불교박물관이 7, 기독교가 2, 그리고 천주교가 1, 도합 10개처이다.²⁾ 그리고 문화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립종교박물관은 거의 모두 50개 처에 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전통종교의 문화재를 수집·전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 전통종교와 한국 문화·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2B. “사립 다종교박물관”은 설립과 운영의 면에서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공립 다종교박물관”의 설립에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그 운영에 어려운 점들이 많듯이, “사립 다종교박물관”도 같은 이유에서 어려운 점을 많이 안게 된다.

이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2) 불교: 통도사유물관(92.11.23일 문화부 등록), 수덕사유물관(99.9.10), 월정사유물관(00.7.3), 도감사유물관(02.3.12), 해인사유물관((02.9.12), 송광사유물관(01.6.11), 직지사유물관(96.11.22) 이상 7처. 기독교: 평강성서유물관(99.3.23),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03.7.29), 이상 2개처. 천주교: 대구가톨릭대학박물관(00.12.30)이상 1개처. 도합10개처.

- 1A. 공립 전통종교 박물관 (●)설립·운영 불가능
- 1B. 공립 다종교 박물관 (Ⓛ)설립·운영 가능/단 시간이 많이 걸림
- 2A. 사립 전통종교 박물관 (○)설립·운영 가능/ 현재 주도적 상황
- 2B. 사립 다종교 박물관 (Ⓛ)설립·운영 가능/ 조건

위에서 우리는 “사립전통종교 박물관”을 제외하고 사실상 종교박물관의 설립에 많은 난점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공립”과 “사립”의 다종교 박물관은 같은 이유로 어려운 점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종교박물관이 사실상 크게 필요한 대목은 바로 “다종교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서문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다종교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종교 박물관의 경우, 아마도 민간인이 충분한 자금을 투입한다면, “공립” 다종교 박물관 보다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다종교 박물관은 우선 국가기관에서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종교 박물관의 운영은 비종교 박물관과는 달리 종교적 중립성과 “종교현상에 대한 균형감각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요청된다. 그러한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종교 박물관의 운영은 종교계가 제기하는 많은 갈등과 마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종교 박물관은 종교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운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바람직한 다종교 박물관은 공립 박물관의 성격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우리는 바람직한 다종교 박물관은 국가지원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12B. 국가지원 설립/법인체 (○)설립·운영 가능/ 성공률 높다

※조건<①국가지원설립 이후 + ②전문인력자율 운영>

우리는 앞에서 순수한 논리적 차원에서는 종교박물관이 4유형으로 분리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지원 설립 법인체로서의 “다종교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 더 첨가하게 되었다.

3. 결론: 종교박물관의 운영방향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된다.

첫째, “2A. 사립 전통종교 박물관”이 우리사회에서 종교박물관을 지금까지 주도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1B.공립” 및 “2B.사립” 다종교 박물관은 설립 및 운영의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기까지 많은 고개를 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둘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2B. 국가지원 설립/법인체”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종교박물관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종교(傳統宗教) 박물관”과 “다종교(多宗教) 박물관”으로 대별 된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 역시 이러한 두 흐름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통종교 박물관”은 각각 자기 전통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사회에서 자신의 문화전통의 위상을 확립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전통종교 박물관이 일반 박물관과 다른 점이 있다.

예컨대, “미술”이나 “민속” 박물관은 문화의 일반분류 가운데 하나의 영역을 대표하는 특수 박물관이다. 그러나 “불교” 또는 “기독교” 같은 “전통종교” 박물관은 이와 반대로, 하나의 박물관이 불교나 기독교라는 개별 종교가 지닌 “독립된 종교적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공간이고 또는 “품”이어서, 그 품 안에서 형성되고, 또 그 품 안에 담겨진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 전통종교 박물관은 자신이 속한 종교적 세계관을 유지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 박물관과는 다른 “이념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예컨대 전통종교 박물관이 “미술”이나 “민속”과 같은 특수 영역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종교적 가치관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종교라는 현상이 지닌 선형적 가치관(先驗的 價値觀)이 지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 종교문화재를 여러 종교전통들로부터 수집·전시하면서 특정한 전통종교의 종교적 세계관에서부터 자유로운 제 3의 독립적 입장에서 박물관을 운영한다면, 이는 이미 이름하여 “다종교(多宗教)”박물관을 의미하게 된다. 다종교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종교문화의 비교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비교작업은, 개별 전통종교 박물관에서는 어려운 점으로써, 모든 종교전통과 그 문화가 제 3의 객관적 근거에서 상호

이해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다종교 박물관에서 가능해진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비교는 갑과 을의 우열을 가르는 것 보다는, 갑과 을이 협력하여 다종교상황의 혼선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종교 박물관은 종교들이 각각 한국의 정신과 문화 전통의 맥락과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나아가 오늘의 한국적 다종교 상황에서 각 종교들이 내일의 우리민족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찾는 작업의 자료현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전통종교” 박물관과 “다종교” 박물관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지점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그것은 내일의 우리민족 문화창조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종교 상황에 있는 우리 사회가 이상적인 문화융합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통합이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종교 박물관이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기능이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서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다종교 박물관의 설립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현실적 요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이버 다종교 박물관”의 설립일 것이다. 사이버 다종교 박물관은 앞으로 본격적인 다종교 박물관의 설립을 앞당기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이버 박물관은 본격적인 다종교 박물관이 운영되는 단계에서도 그 보조역할을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사이버 박물관은 전국의 개별 전통종교 박물관들이 우리민족문화의 창조에 동참하는 길을 열어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종교문화의 종합적 발전에 도화선이 될 것이다.